

보령 베이비 패널 연구 소개

한 경 혜(서울대 교수) · 진 미 정(서울대 부교수) · 나 종 연(서울대 부교수)
박 해 준(서울대 조교수) · 전 을 정(Miami Univ. 조교수) · 장 미 나(서울대 연구원)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양육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양육 및 소비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양육문화의 변화방향을 예측·진단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국내 육아 전문 생산 및 판매업체인 보령 메디앙스 산하 ‘보령 모자생활과학연구소’가 산학협력과정으로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전문적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해 거주지역과 대상자녀의 월령,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 거주하며 0-8세 자녀(영아(0-2세), 유아(3-5세), 학령기 초기(6-8세))를 두었으며, 유아용품 개발 및 생산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어머니 2,188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구에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target baby)을 ‘보령 베이비 패널’로 지칭하여, 패널의 전반적인 발달상황을 탐색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들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버지, 패널의 조부모들의 양육 및 소비실태 및 경험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조사방식은 인터넷을 활용한 웹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웹으로 구성된 조사도구, 즉 조사대상 아동관련 설문과 어머니 관련 설문을 조사대상 아동의 어머니에게 보내며, 각각의 설문이 모두 완료된 후, 학지사와 연계하여 전반적인 아동발달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아동의 어머니가 수행하는 아동 및 본인(어머니)설문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곧바로 조사 아동의 아버지의 이메일로 아버지 설문이 전송되어 아버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본 자료는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상황을 확인하며, 이와 함께 이들을 둘러싼 부모·모나아가 조부모의 양육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종단연구의 첫 번째 수집자료 및 결과라 하겠다(2011년 10월 자료수집 완료).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군집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0-8세(영아/유아/학령기) 자녀의 발달상황을 이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애착, 기질, 학교생활 등 다차원적인 발달상황을 확인했으며, 이와 함께 아동의 보육 및 교육활동 실태, 미디어노출 정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아동의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경험을 비롯해 이들의 양육경험을 긍정적인 차원과 부정적인 차원에서 모두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어머니의 신체 및 정신건강, 부모의 미디어노출정도, 취업에 따른 근로특성, 일가족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및 소비특성이 자녀의 다양한 발달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아동의 양육자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아버지의 다양한 특성(근로특성, 일 가족특성, 정서적 특성, 부부관계특성 등)이 아버지역할에 미치는 관련성을 확인했다.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발달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해보았다. 넷째. 패널아동들의 양육환경을 그들의 조부모세대까지 확대하여 보령베이비패널 가구와 조부모세대간 지원교환 양상과 이러한 양상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비교적 어린자녀로 구성된 보령베이비패널 가구의 여가활동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가족여가와 자녀발달의 연관성을 국내 최초로 확인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소비행동 및 지출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어린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의 자녀를 위한 소비행태 및 문화를 진단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